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 선사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클래식 앙상블 콘서트' 정음사예술회관서 열려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지휘자 정홍식)의 '클래식 앙상블 콘서트'가 지난 14일 저녁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펼쳐졌다.

정음사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정음시와 서울시의 화합과 문화예술 발전,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으로 달콤하게 시작된 공연은 아르방의 '베니스의 축제',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임스 스티븐스의 '전사를 위한 팡파르', 엘가의 '첼로협주곡',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8번'으로 이어지며 라이브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곡을 협연자와 함께 선보였다.

이어서 관객에게 익숙한 '캐리비안 해적의 OST'와 앤더슨의 '나팔수의 휴일'로 마무리하며 짧은 감각의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을 선사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공연은 사전예매 전 좌석 매진으로 공연 전부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공연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해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앙상블 콘서트'가 지난 14일 저녁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펼쳐졌다.

한편,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는 1984년 서울시립소년소녀교향악단으로 창단했다. 음악을 전공하는 20대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

로 구성되어 국내외 각종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정음=김대환 기자

남원시, 한복문화주간 한복체험 이벤트

31일까지 인스타그램 이벤트 참여 무료 체험

남원시가 2021 한복문화 '가을' 주관을 맞아 한복체험관 화인당에서 걸치기만 해도 한 폭

의 그림이 되는 '화인당' 특별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화인당'은 남원시가 일상복에 그냥 '속' 걸치기만 해도 멋스럽게 변신할 수 있도록 제작한 패자 한복으로, 한복의 일상성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2021 한복문화 '가을' 주간 일환으로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화인당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거나 화인당(063-632-8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 희망자는 인스타그램에 '남원화인당'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 및 간단한 후기를 올리면 화인당을 1시간 동안 무료체험을 할 수 있으며, 체험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1일 50명 한정만 참가할 수 있고, 이벤트와는 별도로 한복문화주간(10월 15일~11월까지)에 '화인당'을 입고 광한투원을 방문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해준다.

양인화 관광과장은 "사람들이 평소 예쁘지만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한복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화인당' 이벤트를 통해 해소할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군민 위한 한음페스티벌 무료 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21 방방곡곡 문화 공감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6회에 걸쳐 제3회 한음페스티벌 공연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무료로 선보인다.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 문예회관의 기획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 예술 수준의 제고와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이번 제3회 한음페스티벌은 클라리넷합주 오케스트라, 부안아리랑오케스트라, 부안군민 오케스트라, 부안초등학교 관악대, 부안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 클라리넷합주 오케스트라, JSM 쿼텟, KBS전주어린이합창단, 헤르츠색소폰 앙상블, 테너 이원용, 샌드아트 임사선 작가가 출연을 한다.

공연은 MC 김종석의 사회로 진행되며, 동물의 사육제, 오슬레미오, 시네마천국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음악들과 섬집아기, 홀로아리랑 등 한국적인 음악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순수창작곡을 연주하여 부안군의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안군민만 입장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선착순으로 입장하며 발열 체크, 자가문진표 작성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좀 더 여유 있게 도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연 관람하시는 군민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29회 금파 강도근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개최

남원시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사)강도근동편제판소리보존회(회장 이난초)가 주관해 올해 29회째를 맞은 금파 강도근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가 지난 소극장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홍부제를 기념하고 강도근 동편제 판소리 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이번 경연대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일반부, 신인부(단체 및 개인),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5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16일 토요일은 예선전이 17일은 동편제 강도근 홍보가 완창 발표회 및 본선이 치러졌다.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홍보가 예능보유자

였던 강도근 명창은 동편제 판소리의 마지막 대가로 평생 고향을 지키며 향토의 예맥을 이어온 예술인이며 송민갑 판소리의 전통을 이어받아 동편제 소리를 고수했고 1906년 남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한편 이난초 회장은 "강도근 명창의 뒤를 이어 동편제 소리의 계보를 잇는 이번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가 앞으로 동편제 소리를 널리 알리고, 후학양성을 위한 장이 되기를 바라며 참가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향 정음 역사·문화 노래에 담아

김재영 역사학자, 음반 '늑두꽃 피던 그 자리' 5곡 실어

한 역사학자가 자신의 사비를 들여 정음의 역사와 문화를 노래한 음반을 내 화제다. 음반에는 '향기로 만나자'를 비롯한 '샘고을 정음', 2019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무성서원을 노래한 '무성서원', 막걸리를 예찬한 '아무튼 정음 막걸리', '늑두꽃 피던 그 자리' 등 총 다섯 곡이 실려 있다.



이 음반의 기획자이자 작사가이며, 직접 노래한 정음역사문화연구소의 김재영 이사장은 30년 동안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한 실증사학으로 다져진 정통과 학자이다.

그는 무성서원이 있는 원촌마을에서 태어나 최치원이 술잔을 띄우고 풍류를 즐겼

는 유상대가 있는 동편마을에서 자랐다. 이러한 성장기의 주변 환경과 역사적인 배경이 알게 모르게 자신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래전부터 정음의 역사문화를 가사로 한 음반을 내고 싶었다고 한다. 총 다섯 곡 중 한 곡은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이 되는 배들 평야에 서서 전봉준을 회상하는 가사로 본인이 직접 노래하고, 나머지 네 곡은 자신이 쓴 가사를 현재 활동하는 가수들에게 부르게 했다.

김 이사장은 이 음반이 정음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정음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노랫말을 통해 정음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이번 작업을 통해 역사가 시가 되고, 시가 역사가 되며 음악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정음=김대환 기자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도내 시·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인형극을 진행했다.

유아기 아동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인형극 순회 공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도내 총 6회 진행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도내 시·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인형극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10월 1일 군산을 시작으로, 15일 장수, 19일 익산, 20일·26일 고창, 22일 전주 등 총 6회 순회공연으로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해소해 문화 소외지역에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인형극 '우리 함께해요'는 3세~5세 아이들 대상 맞춤형 인형극으로, 주인공이 보여주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인지

하지 못했던 성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상황극 형태로 진행된다.

지난 15일 공연을 관람한 장수 A유치원 담당 교사는 "양성평등에 대해 대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공연을 장수에서 만나 볼 수 있어 더욱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운애 센터장은 "아동들에게 흥미로운 인형극을 통해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을 키워주고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인형극이 도내 유아들의 성평등 조 기 교육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www.jwec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작업복 단체복

안전화 안전용품

판촉물 기념품

사무용 가구 파티션, 앵글, 선반 제작

명찰, 로고 각종 인쇄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대표전화 063)227-4610 N A V E R 은혜상사(주) 검색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